

| | |
|--------------------|--|
| 저자 (Authors) | 한기문 Han, ki-moon |
| 출처 (Source) | 목간과문자 9 , 2012.10, 103-124 (22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9 , 2012.10, 103-124 (22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7408 |
| APA Style | 한기문 (2012). 고려시대 鄭襲明 묘지명의 검토. 목간과문자, 9, 103-124.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8 09:39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려시대 鄭襲明 묘지명의 검토

한기문*

- I. 머리말
- II. 묘지명의 형태와 판독
- III. 묘지명의 해석과 내용
- IV. 묘지명과 기타 자료를 통해 본 정습명의 생애와 정치지향
- V. 맺음말

〈국문 초록〉

정습명 묘지명과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그의 생애와 활동 및 정치지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정습명 묘지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확인하였다. 먼저, 그의 출생 연도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그의 부모, 처가 모두가 鄭氏임을 알 수 있어, 당시 향촌 호장층이 동성혼을 통해 그 족적유대를 유지해간 관행을 알 수 있고, 이로써 향공 출신의 기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향공시, 성균시, 최종 급제시의 나이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공 출신 정습명의 정치 행로, 葬禮過程, 卒年이 『高麗史』와 1년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습명은 현종 1년(1094)에 영일현 부호장 鄭侯鑑을 아버지로 같은 성씨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하였다. 그의 관력과 정치 행보에서 중요한 것은 인종 14년 묘청난을 진압하는 데에서부터 동왕 23년 『三國史記』 편찬에까지 金富軾과 행보를 같이 한 점이다. 의종 즉위 후에는 인종의 顧託 신하로서 적극 국정에 참여하였으나, 동왕 5년에 왕의 측근인 정치구도에서 배제되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

정습명은 김부식과 같은 지연으로, 부식의 형 부일의 문생으로서 김부식과 정치 행보를 같이하였다. 나아가 그는 公禮를 바탕으로 국왕권 중심의 국가 질서를 강조한 김부식의 정치 이념도 함께하였다. 이는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동문선』에 남은 그의 표전문에서도 나타나 있다.

▶ 핵심어 : 鄭襲明墓誌銘, 同姓婚, 鄉貢出身, 金富軾, 政治志向

I. 머리말

고려시대 역사를 이해하는 생생한 방법의 하나는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통하는 것이다. 이 시기 주된 인물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열전에 다양한 분류로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고려사』를 찬집하던 시기에 성리학적 역사관에 따라 국가를 위한 충·효가 적용되거나, 혹은 고려왕조의 비정상적 역사상을 기술하고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위한 인물들의 활동상을 제시하는 점에서 고려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제한된 부분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는 열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대 금석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인물들의 활동과 당시 사회상까지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고려사』 열전과 당대 묘지명을 비교·검토하는 것도 그 하나가 될 수 있다.¹⁾

고려시기 묘지명은 300여 점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금도 의외의 곳에서 새로이 발견되곤 한다.²⁾ 여기서 주목한 묘지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6년에 고려·조선묘지 신자료로 소개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자료는 손환일 연구원이 제공한 것이라 하고 그 자세한 경위는 소개되지 않았다.³⁾

여기서, 특히 주목한 것은 鄭襲明 묘지명이다.⁴⁾ 정습명은 김부식과 함께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생애는 『고려사』 열전 권11 정습명전에도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출신지와 향공 등제 사실과 간관으로서 기개있는 사실만 소개되어 그의 구체적 생몰년 등은 알 수 없다. 또한, 그의 부모, 처, 자식 등의 혈족관계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할 묘지명에는 이러한 사실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당대 향촌 동성혼에 관한 사실도 볼 수 있어 사회사적으로도 주목된다.

본고는, 정습명 묘지명 자료와 『고려사』 열전, 『고려사절요』 자료, 그리고 기타 『동문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정습명의 생애와 활동,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기 향촌의 사회사적 모습의 일면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묘지명 자료의 형태, 판독, 해석, 내용 분석 등의 기초 작업을 진행할 것이

1) 최영호는 고려시대 묘지명과 『고려사』 열전의 서술형태를 개략적으로 비교한 바 있다(2005, 「고려시대 묘지명과 『고려사』 열전의 서술형태」, 『한국중세사연구』19).

2) 김용선, 2008, 「새 자료 고려 묘지명 다섯 점 만」, 『역사학보』198.

_____, 2010, 「새 고려 묘지명 7점」, 『사학연구』100.

3) 國史編纂委員會, 2006, 『高麗·朝鮮墓誌 新資料』韓國史料叢書第五十.

4) 묘지명은 명이 있어야 하나 본 정습명 묘지명에는 없다. 그러나 묘지석을 통상 묘지명으로 지칭하므로 여기서는 통상 예에 따라 묘지명으로 칭한다.

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사』 열전과 기타 자료를 통한 생애 복원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로써, 미시적 접근으로 당시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한 시대상을 가늠하고자 한다.

II. 묘지명의 형태와 판독

묘지명의 크기는 가로 34.2cm, 세로 25.5cm, 두께 2cm 이다. 장방형에 테두리와 세로로 간을 치고 종서로 가로 2.5cm, 세로 2.5cm 크기의 글자를 음각하였다. 총 글자 수는 101자이다. 그런데 3행까지는 9자씩 새겼고 다음 8행은 10자씩, 그리고 마지막 행은 4자를 새겼다. 뒷면에는 구획을 정하지 않고 중간 정도에서 약간 우측으로 기울면서 종서로 16자가 새겨져 있다. 글씨체는 해서이고 음각에 朱墨을 칠한 흔적이 보인다. 석질은 점판암이다.⁵⁾

고려시대 묘지명 형태는 다양하다. 하지만, 정습명 묘지명은 동시기의 묘지명과 비교할 때 규모나 형태면에서 상당히 간략화 되어 있다. 묘지명은 형태상 정사각형, 장방형, 규수형, 원수형 등이 있는데, 본 묘지명은 장방형이며, 글자 수 역시 매우 적다. 때로는 석관에 묘지명을 새긴 예도 더러 있는데⁶⁾ 본 묘지명은 그러한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묘지명을 구성하는 문장 형식에서도⁷⁾ 매우 간략하다. 먼저, 제액이 없다. 그리고 명도 없고, 찬자 역시 없다. 매장지에 관한 기록은 뒷면에 쓰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묘지명은 당시 관인 묘지명으로는 이례적이다. 이 묘지명이 작성된 1150년을 전후한 시기의 묘지명 형식을 정리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종, 의종 연간에 묘지명이 밀집되고 있음을 보아⁸⁾ 묘지명 작성이 크게 유행했던 사실도 짐작된다. 그런 가운데, 정습명묘지명은 형태와 문장 형식에서 너무나 소략하다.⁹⁾

그러했던 연유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면, 그의 죽음과 관련된 『고려사』 열전과 『고려사절요』의 줄기 부분이 주목된다. 그는 인종대 의종이 태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데 마음을 다함으로써 의종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인종의 고탁으로, 의종에게 할 말을 다하자 의종이 이를 꺼렸고, 김존중, 정함 등이 밤낮으로 정습명의 단점을 지적하였는데, 마침 병으로 정습명이 물러나자 김존중이 그 직을 대신하게 되었다. 정습명이 왕의 뜻을 알고 좌절하여 죽었다고 전한다. 이로 보면, 그의 죽음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셈이다. 권력으로부터의 소외와 좌절감 속에 죽음을 맞았으므로, 그의 장례 또한

5) 국사편찬위원회, 2006, 앞의 책, p.28.

6) 허홍식, 2006, 「金光中配 李氏의 묘지와 석관」, 『생활문화연구』19, pp.10~17 참조.

7) 묘지명 형식과 종류에 대해서는 박종기, 2000, 「고려시대 묘지명 역주작업의 현황과 과제」, 『고려시대연구』I 참조.

8) 김용선, 2004, 「고려 묘지명 일람」, 『고려 금석문 연구-돌에 새겨진 사회사』, 일조각 참조.

9)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소략한 묘지명 예는 金之榮 묘지명(1162)(김용선 편저, 2001, 『제3판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pp.196~197), 井彦深 묘지명(1146)(서성호, 2006, 「정언심 묘지명 소개」, 『다시 보는 역사편지 고려묘지명』, 국립중앙박물관, pp.150~151) 등의 예도 있다.

갑작스러웠고, 묘지명도 서둘러 작성하면서 당시 관인층의 묘지명 작성 형태와 다른 이례적으로 간략한 형태로 남게 된 것은 아닌가 한다. 아울러 문벌과 연결되지 않은 향공출신 관인의 묘지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묘지명의 앞면(그림1), 뒷면(그림2) 탁본을 제시한다.¹⁰⁾

묘지명은 애매한 글자 없이 모두 판독되는데, 그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서를 편의상 횡서로 바꾸어 행에 따라 제시한다.

판독문

<앞면>

- 1 大中大夫禮部尙書同
- 2 知樞密院事翰林學士
- 3 知制誥鄭夔明迎日縣
- 4 人也父副戶長侯鑑母鄭
- 5 氏公年十一備貢入京師
- 6 十七中成均二十七捷第
- 7 自此備歷顯途至庚午年
- 8 官至如右年五十七其年
- 9 三月十六日卒妻鄭氏有
- 10 一子將仕郎良醞令同正
- 11 淵博嗣時大金皇統十年
- 12 三月日記

<뒷면>

庚午三月二十五日葬牛峯縣牛坰左麓

위의 판독문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자료집에 판독된 것과 다른 점과 더 설명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앞면 5행 6번째 備는 備의 이형자이다. 역시 앞면 7행 3번째 備도 備의 이형자이다. '備貢'은 향공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향공시에 합격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備歷顯途'는 뛰어난 관력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리고 뒷면 13번째 卍는 혹 卍가 아닌가 하였으나 사진 판독 결과 卍가

10) 국사편찬위원회, 2006, 앞의 책, pp.24~27에서 전재함.



그림 1



그림 2

분명하였다. 뒷면 14번째 峴은 峴 혹은 壩의 이형자로 보인다. 峴은 고개이고 壩는 방죽, 제방의 뜻이다. 峴은 峴의 이형자 예가 많으므로 ‘牛峴’는 ‘소고개’라는 뜻이 된다.¹¹⁾

Ⅲ. 묘지명의 해석과 내용

묘지명의 해석문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석문

<앞면>

대중대부예부상서 동지추밀원사한림학사 지제고 정습명은 영일현 사람이다. 아버지는 부호장 후감이며 어머니는 정씨이다. 공의 나이 11세에 향공으로 경사로 가서 17세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27세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이때부터 현도를 역임하여 경오년에 이르러 관직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음에 이르렀다. 나이 57세 그해 3월 16일에 졸하였다. 처 정씨에서 1자가 있는데, 장사랑 양온령동정 연박이 그 후사이다. 대금 황통 10년 3월 모일에 기록한다.

<뒷면>

경오 3월 25일 우봉현 牛峴 좌측 기슭에 장사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최종 관직과 본관, 부의 향직, 모의 성씨, 11세에 향공으로 경사에서 공부하고 성균시를 거쳐 예부시에 합격한 사실, 졸할 때 나이가 57세이고 경오년 대금 황통 10년이었고, 부인은 정씨이고, 후사로 1자가 있는데 당시 장사랑 낭온령 동정 연박이라는 것 등이며, 장지는 우봉현 牛峴 左麓이라는 것이다. 묘지명에 기록되는 관력은 모두 생략되었다. 또한 성품, 미담 등도 전혀 언급이 없다. 그의 생애를 총괄하여 운문으로 제시하는 銘도 없다. 묘지명 작성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장례 날짜가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습명이 11세에 경사에 공거된 사실, 17세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27세에 예부시에 합격한 과정 등이다. 그의 본관지 영일현에서 향공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연령별 과정이 보인다.

그리고, 그의 성관이 정씨인데 어머니도 정씨이며 그의 처도 정씨임을 알 수 있다. 부계, 모계, 처계

11) 이형자 검색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이체자정보검색 참조.

가 모두 정씨로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부모가 동성인 경우는 더러 있으나, 체계까지 동성인 경우는 드문 현상이다. 다만, 동성동본인지는 알 수 없다. 『세종실록지리지』 영일현 토성조에 鄭氏가 나오므로¹²⁾ 모두 동성동본이 아닐까 추측된다. 적어도 정습명이 과업 공부를 하고 결혼하던 무렵인 12세기 초에는 동성 결혼의 관행이 아무 문제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적어도, 정습명의 부와 모는 동성동본혼이었을 가능성은 높다. 부는 부호장으로 영일현 邑司를 구성한 호장층이고, 거기에 걸 맞는 혼인도 영일현 내에서 배우자를 맞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¹³⁾ 이와 비슷한 시기의 朴康壽 묘지명에도 동성혼 사례가 있다.¹⁴⁾

동성혼은 신라시기부터 왕실에서 있었고, 고려시기에도 왕실에는 근친혼이 있었다. 왕실의 근친혼은 왕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벌의 경우도 왕실과 중첩된 혼인을 통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양상을 보였다.¹⁵⁾

한편, 여말선초 각종 자료에 군현의 토성이족들의 통혼권은 동성혼과 동본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시대가 올라 갈수록 계급내혼과 지역내혼제를 고수하여 동읍토성끼리 철저히 얽혀 있었다. 이는 족적 결합을 굳혀 읍사의 향리직도 배타적으로 점유 내지 세습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그 배경으로 추론된다.¹⁶⁾

고려 후기 품관에 올라 묘지까지 남긴 급제자로 동성동본혼인 경우는 安軸의 조와 외조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호장층이지만, 동성동본혼은 미입사층에는 흔히 있는 현상이다. 국보호적을 분석한 예에 따르면, 통혼에 있어서 처와 모가 같은 집안끼리 이루어진 예는 흔히 있는데, 이는 率堦家族의 관습과도 관련이 깊으며 여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동남부의 산간분지에 소수 토성이 밀집·안정된 지역일수록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추측된다.¹⁷⁾

이러한 동성동본혼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보면, 정습명 묘지명에 보이는 부모와 처가 동성인 현상이 묘지명이 작성되던 12세기 중엽, 향공으로 상경 종사한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 사례로 주목된다. 또한 정습명이 정치적 입장을 같이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면서 그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사론에서도 동성혼 문제는 당시 관행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¹⁸⁾ 당시 동성결혼 관행이 유학자의 인식에도 큰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정습명의 동성혼은 그의 향공으로서 족적 기반에 의지할 수밖에 없

12) 『世宗實錄地理志』 迎日縣, 土姓三鄭成朱 來姓二金崔.

13) 고려시기 향촌 계급내혼에 대해서는 노명호, 1988, 「고려시대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과 가족」, 『한국사론』19 참조.

14) 閔賢九, 1974, 「朴康壽 墓誌銘의 檢討」, 『歷史學研究』5.

15) 정용숙, 1992, 『고려시대의 후비』, 민음사.

권순형, 2006,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 해안.

16) 이수건, 1984, 「토성의 출신 기반」, 『한국중세사학회사연구』, 일조각, p. 245.

17) 허홍식, 1981, 「국보호적으로 본 고려의 사회구조」, 『고려사학회사연구』, 아세아문화사, pp.114~115, p.127.

18) 『三國史記』新羅本紀 卷3 奈勿尼舍今 元年 조 참조. 정구복은 김부식이 고유한 고대적 습속을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파악했다고 보았다(1985, 『고려시대 사학사 연구-사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는 면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그의 최종 관직은 대중대부 예부상서 동지추밀원사 한림학사 지제고인데, 『고려사』 세가와 『고려사절요』 줄기에는 추밀원지주사로 나오고, 『고려사』 정승명 열전에는 의종 즉위전 예부상서로 승차한 사실이 있고, 의종 즉위 후 한림학사, 추밀원지주사를 제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묘지명에 보이는 최종 관직과는 약간의 상위가 있다. 대중대부는 종4품 상급인데 예부상서는 정3품, 동지추밀원사는 종2품직, 한림학사는 정3품직이다.¹⁹⁾ 이로 보면, 관계와 직사가 잘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보이는 추밀원지주사 직사는 정3품직이다. 묘지명에 종2품의 동지추밀원사와는 달리 직품이 한 단계 낮다. 정승명의 죽음에 따라 증직되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하지만, 묘지명의 정승명의 최종 관계 대중대부는 직사와는 맞지 않아 미심한 점이 있다.

묘지명에는 정승명이 졸할 때의 나이 57세임이 명시되어 있고 졸년을 대금황통 10년이라 하여, 그의 출생 연도와 졸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 열전에는 그의 출생 연도를 밝히지 않아, 지금까지 그의 출생과 향년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졸년인 의종 5년(1150)은 금의 연호로 보아 천덕 2년이다. 그런데, 묘지명에는 황통 10년으로 쓰고 있어서, 금의 연호가 皇統에서 天德으로 바뀐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는 묘지명 작성자가 당시 금의 황제가 熙宗에서 帝亮으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경우는 종명이나 묘지명에서 더러 나타나는 예로 보아, 묘지명의 기록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정승명의 출생은 그의 졸년시 경오년(1150)의 나이 57세를 역산하면, 선종에서 현종으로 왕위가 넘어가던 해 1094년으로 추론된다. 이에 따라, 묘지명에 보이는 그의 경사로 향공 되던 해는 예종 1년(1104)이고, 성균시에 합격한 17세는 예종 6년(1110)이며, 그가 예부시에 합격한 27세 때는 예종 15년(1119)이다. 예종 때는 송에 빈공과에 기획적으로 응시·수학, 그리고 귀국하게 하여 송으로부터 학식을 도입하여 국학을 진흥하고 학제, 과거제를 개혁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정승명은 영일 현에서 향공으로 경사에서 수학하고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묘지명에서 정승명의 향공, 성균시, 급제 등의 연령을 명시하고, 자세한 관력은 모두 생략된 것과 정승명 자신이 올린 표전에서 자신이 향공 출신임을 특히 강조한 점으로 보아, 묘지명에서는 급제하기까지의 과정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공시는 계수관시라고도 하는데, 현종대 판에 따르면 諸州縣에서 정수에 따라 歲貢하여 계수관이 試選하는데 제술업은 五言六韻詩 1수로 시험하여 서울에 보내면 국자감에서 更試하여 입격자는 赴舉를 허락하고 나머지는 本處로 돌아가 학습하게 하되, 만약 계수관이 합당치 못한 사람을 貢擧했을 때는 국자감이 考覈하여 科罪토록 하였다고 한다.²⁰⁾ 이 규정에 따르면, 정승명은 계수관시로 공거되었으나 국자감에서의 갱시에는 바로 입격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후 6년 뒤에 성균시 곧 국자감시에 합격하기 때문이다.

묘지명에는 ‘備貢入京師’라 하여 다시 향리로 되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어디에서 국자감시를

19) 박용운, 2009,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참조.

20) 『高麗史』卷73, 選舉1 科目1.

준비하였을까. 당시 사학 12도가 유행하였으므로²¹⁾ 여기에서 국자감시를 준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李勝章 묘지명에는 이승장의 부 李棟民이 어려서 가족과 함께 북쪽으로 와서 12도 중의 한 분재인 率性齋에서 공부하여 급제한 예로 미루어,²²⁾ 정습명은 사학 12도 중의 한 分齋에서²³⁾ 6년간 공부 후 성균시에 합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其人 選上 등으로 상경한 영일현 호장층의 후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균시는 국자감 명칭이 비록 고려 후기에 성균관으로 개칭되지만, 중국에서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칭함으로 국자감시의 異稱으로 당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²⁴⁾ 국자감에서 무려 10년간 예부시 준비 끝에 급제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예종은 학교와 과거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국자감에 三舍制를 도입하고, 3년간 국자감에서 공부하여야 최종고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법제를 마련한다. 이러한 제도 마련의 취지는 보다 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문벌을 견제하고 향공 출신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로 생각된다.²⁵⁾ 이 같은 시대적 기회를 맞아, 정습명은 국자감에 3년간 공부하고, 또한 上舍에 오르는 陞補試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0년의 기간을 소요하여 최종 고시에 합격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정습명의 최종 고시를 주관한 知貢舉는 누구였을까? 그의 관력과 정치 행보와 관련될 수 있다. 이를 『고려사』 세가에서 찾아보면, 예종 15년 5월 신해에 건덕전에 나가 覆試를 보고 정사에 李之氏 등에 급제를 내렸다고 한다.²⁶⁾ 동서 선거지 선장에는 더욱 상세하게 韓安仁이 지공거, 金富侁이 동지공거로 진사를 뽑아 6월 신해에 건덕전에 나가 복시를 보아 정사일에 이지지 등 38인에 급제를 내렸다는 기사가 있다.²⁷⁾ 바로 이해가 묘지명에 따르면, 정습명이 27세 되는 1119년이다. 이 해는 바로 예종 15년이다. 그러므로, 정습명은 한안인, 김부일을 좌주로 그의 문생 38인 중에 1명이었을 것이다.

그의 후사인 鄭淵博은 당시 將仕郎 良醞 同正이다. 장사랑은 문종대 기준으로 문산계 종9품 하에 해당한다. 양온령은 양온서 영인데 국가 제사나 큰 행사 때에 술과 감주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관장한 기구의 영인데 그나마 동정직을 받고 있다.²⁸⁾ 이로 보아, 그는 직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정습명은 그의 아들을 출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연박의 인명은 기타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21) 신천식, 1995, 『고려교육사연구』, 경인문화사.

22) 이동민의 상경 수학후 급제 과정에 대해서는 한기문, 2011, 「고려시대 성주 호장층의 존재양태와 활동공간-성주 시비실유적을 중심으로-」, 『북한사립』29, 경북사학회 참조.

23) 分齋는 사학 12도의 9齋 중 하나인데 이는 순차적 교육과정이지 아니고, 횡적인 동일 수준의 단지 재명만 달리한 것으로 파악된다(신천식, 1995, 앞의 책, p.311).

24) 허홍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박용운, 1990,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 일지사.

25) 신천식, 1995, 앞의 책, pp.59~85.

26) 『高麗史』卷14, 世家 睿宗 15年 5月 辛亥.

27) 『高麗史』卷73, 志 27, 選舉, 選場, 睿宗 15年 5月.

28) 박용운, 2009, 『고려사 백관지 여주』, 신서원 참조.

묘지명 뒷면에는 장례한 날짜와 장지가 명시되어 있다. 대개 묘지명 본문에 장지를 적는데, 본 묘지명에는 뒷면에 장례 일자와 장소를 명시하고 있다. 이 역시 장례가 급히 진행되면서 묘지명에 간단한 이력 외에 꼭 들어 가야 할 장지를 추록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짐작된다. 정습명이 졸하자 묘지명을 만들고 장지와 장례일이 결정되고 장례일 뒷면에 그 날짜를 추적한 것으로 짐작된다. 장지 우봉현은 정습명에 지급된 柴地가 있던 곳으로 짐작되고, '牛垵'이라 함은 '소고개'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정습명이 졸한 날자는 3월 16일인데 우봉현에 장사한 날자는 3월 25일로 명시하였다. 이로 보아, 졸한지 9일째 되던 날 장사를 한 셈이다. 그 사이 불교 사원에 빈소를 두었는지, 장법을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인종, 의종 연간 관인층 묘지명에 나타난 장례는 쉼 이후 殯所, 다비, 유골 안치 매장 등의 절차를²⁹⁾ 다 마치면 대개 짧게는 2달, 길게는 무려 1년 정도 걸린다. 정습명의 경우, 졸에서 매장까지 9일만에 모든 절차를 마친 점은, 앞서 간략한 묘지명 작성과 짧은 장례 기간 등과 더불어, 바로 그의 급작스러운 권력으로부터 실세와 자결에 가까운 죽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묘지명과 기타 자료를 통해 본 정습명의 생애와 정치지향

정습명에 대한 기록은 묘지명 외에 『고려사』 열전 김부식 다음, 그리고 『고려사절요』 졸기에도 전한다. 이를 모두 전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정습명은 迎日縣 사람이니 기개가 탁월하고 비상하였다. 학문에 힘써 글을 잘 하여 향공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內侍에 배속되었다. 인종 때에 여러 번 옮겨 國子司業 起居注 知制誥에 임명되었다. 낭사 崔粹, 재상 金富軾, 任元黻, 李仲, 崔奏 등과 함께 상서하여 時弊 10조를 말하고 복합 3일에 대답을 듣지 못하자 모두 사직하고 나오지 않았다. 왕이 執奏官을 파하고, 제처 내시별감과 내시원 別庫를 감하고 최재 등을 불러 일을 보라고 하였다. 정습명 혼자 부진하다고 말하고 따르지 않았다. 우상시 崔灌이 혼자 상서에 함께하지 않아 직에 복무함이 평시와 같아 의자들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정습명이 김부식의 별제에 우거하였으므로 간관이 그가 간관으로서 체통을 잃었다고 탄핵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다. 기거주로 좌천하였다가 조금 있다가 예부시랑으로 승진하였다. 의종이 즉위하여 한림학사로 임명하고 추밀원지주자사로 올렸다. 처음 의종이 원자일 때 정습명이 시독이었는데 인종이 원자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任后도 또한 차지를

29) 박진훈, 2005,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官人 가족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35.

사랑하여 장차 태자로 세울려 하였다. 정습명이 마음을 다하여 보호하였으므로 폐위되지 않았다. 정습명이 오래 간관직에 있어서 諍臣의 품모가 있어서 인종이 깊이 그 그릇됨을 생각하여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위독함에 이르러 의종에게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마땅히 정습명의 말을 써야 한다”라 하였다. 정습명은 선왕의 유명 부탁을 받은 이후로 [잘못을] 알고는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의종이 그를 꺼리었다. 金存中과 鄭誠이 밤낮으로 그를 흠을 잡았다. 마침 정습명이 병들어 김존중이 그 직무를 임시로 대신하게 하였다. 정습명이 왕의 뜻을 헤아려 알고 약을 마시고 죽으니 이때부터 영행이 날마다 진출하고 왕은 더욱 방자하여 노는데 절도가 없었다. 일찍이 귀법사에 갔는데 말을 달려 獼嶺의 茶院에까지 이르러 따르는 신하가 미치지 못하자 왕이 혼자 기둥에 의지하여 시자에게 말하기를 “정습명이 만약 있었다면 내가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라 하였다.³⁰⁾

습명은 迎日縣 사람이다. 기개가 탁월하고 비상하였으며, 학문에 힘써서 문장에 능하여 鄉貢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일찍이 왕이 태자가 되니, 습명이 侍讀이 되었다. 인종이 태자가 능히 繼承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고, 任后도 또한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 장차 태자로 세우려고 하므로, 습명이 마음을 다하여 調和하고 보호하였기 때문에 태자가 폐함을 당하지 않았다. 습명은 오랫동안 간관직에 있었는데, 諫諍하는 신하의 풍도가 있어, 인종이 깊이 그의 器量을 중히 여겨서 承宣에 발탁하여, 東宮의 스승이 되었다. 인종이 병중에 태자에게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 마땅히 습명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였다. 왕이 위를 이어받자, 전에 태후가 작은 아들을 세우려 하던 일을 원망하였으므로, 하루는 태후를 모시고 앉아 있다가 말이 태후에게 미치자, 태후가 맨발로 뜰에 내려가 하늘을 우러러 고하였다. 홀연히 뇌성과 비가 함께 일고, 번개가 심하게 치며 전광이 자리까지 들어왔다. 왕이 놀라고 두려워서, 몸을 구부리고 태후의 옷자락 밑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벼락이 궁전의 기둥을 쳤다. 왕이 회오하고, 드디어 모자의 정이 처음과 같이 되었다. 습명은 선조[先朝(仁宗)]의 부탁을 받았으므로 아는 바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 왕이 꺼리니, 金存中·鄭誠이 밤낮으로 습명을 헐뜯었다. 마침 습명이 병으로 휴가

30) 『高麗史』卷98 列傳11 鄭襲明, “鄭襲明迎日縣人 倜儻奇偉 力學能文 以鄉貢登第 屬內侍 仁宗朝累轉國子司業起居注知制誥 與郎舍崔粹率相金富弼任元毀李仲崔奏等 上書言時弊十條 伏閣三日 不報 皆辭職不出 王爲罷執奏官 減諸處內侍別監及內侍院別庫 召粹等令視事 襲明獨以言不盡從不起 右常侍崔灌獨不與上書供職如常 議者鄙之 襲明寓居富弼別第 諫官劾襲明失諫臣體 請罪之落起居注 尋陞禮部侍郎 毅宗即位授翰林學士 進樞密院知奏事 初毅宗爲元子襲明侍讀 仁宗慮元子不克負荷 任后亦愛次子將立爲太子 襲明盡心調護 故得不廢 襲明久居諫職有諍臣風 仁宗深加器重 使傳東宮 及不豫謂毅宗曰 治國當用襲明言 襲明自以先朝顧托 知無不言 毅宗憚之 金存中鄭誠日夜短之 會襲明告病 以存中權代其職 襲明揣知王意 仰藥而死 自是佞倖日進 王益縱恣逸遊無度 嘗幸歸法寺馳馬至獼嶺茶院 從臣皆莫及 王獨倚柱謂侍者曰 鄭襲明若在吾 豈得至此”.

를 청하니, 존중에게 그 직임을 임시로 대행시키었다. 습명이 왕의 뜻을 헤아려 알고, 약을 먹지 않고 죽었다.³¹⁾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습명은 영일현 사람이고, 향공으로 등제하여 내시에 속하고, 오래도록 간관에 있어서 시폐를 논함에 김부식 등과 함께하고 그들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의종이 원자로 있을 때, 태자의 지위를 보전하는데 전심하여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인종은 의종에게 정습명의 말을 듣도록 고탁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종의 잘못을 알면 말하지 않음이 없어서, 마침내 의종이 그를 꺼려서 김존중으로 그 직을 대신하게 되자 약을 마시고 죽었다. 열전에는 정습명의 간관으로서 직언하는 면을 중심으로 諍臣의 풍모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문에 조선시기 『고려사』 찬자에 의해 열전에 입전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³²⁾

하지만, 열전에는 그의 부모, 처, 자식에 대한 내용과 교육, 과거 합격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한 사연도 『고려사절요』와는 다르다. 인종의 顧托으로 의종에게 직언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김존중에 대신하게 되자 죽음을 맞았다는 내용은 일치한다. 『고려사』 세가 의종 24년조에 사신 金良鏡이 찬문을 쓴 것으로 보아 『고려사』 세가 기록은 실록 기록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실록에 언급된 내용이 『고려사』 열전과 『고려사절요』 줄기에 약간 다르게 옮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열전에는 ‘仰藥’이라 표현하여 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하여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음을 말하였으나, 『고려사절요』에는 ‘却藥’이라 표현하여 약을 물리치고 죽었다고 하여 치료약을 먹지 않고 죽음을 맞은 것으로 달리 표현하였다.³³⁾ 어느 쪽이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은 다름이 없다. 그의 성격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고려사절요』에는 의종이 즉위 후 왕위 계승문제에 반대한 어머니와의 화해의 순간을, 의종이 벼락이 치는 순간 어머니 옷자락 밑에 숨은 일화를 삽화로 더 추가되어 있다.

『고려사』 세가와 『고려사절요』에는 의종 5년 신미년 2월에 김부식이 77세로 졸하고 그 해 3월에 정습명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정습명이 죽을 때는 57세라고 묘지명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는 김부식과는 20년이나 나이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전에는 김부식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단면을 소개하였는데, 먼저 시폐 10조를 김부식과 함께 복

31) 『高麗史節要』卷11, 毅宗 5年 3月, “夔明 迎日縣人 倜儻奇偉 力學能文 以鄉貢擢第 初王爲太子 夔明侍讀 仁宗慮太子不克負荷 任后亦愛次子 將立爲太子 夔明盡心調護 故得不廢 夔明久居諫職 有諍臣風 仁宗深加器重 擢授承宣 傳東宮 及不豫 謂太子曰 治國當用夔明之言 王嗣位 怨太后前事 一日待坐 語侵之 太后跌而下殿 仰天而誓 忽雷雨大震 電光入座 王驚懼 俛入太后衣下 俄而震殿柱 王悔悟 遂爲母子如初 夔明自以先朝顧托 知無不言 王憚之 金存中鄭誠日夜短之 會夔明告病 以存中權代其職 夔明揣知王意 却藥而死”.

32) 정습명은, 태종에 의해 제거되었지만 고려사 찬자가 대절의 풍모가 있다하여 『고려사』 권117 열전30 諸臣에 올린 정몽주의 조상이다. “鄭夢周字達可知奏事夔明之後”.

33) 安鼎福은 『東史綱目』第九上 毅宗 辛未 五年 3月조에서 ‘殺樞密院知奏事鄭夔明’이라 기록하였다. 『漢語大詞典』에 따르면 ‘仰’은 마시다는 의미가 있지만, ‘却’은 그런 뜻이 보이지 않아 표현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합 상서한 일이다. 또한, 간관으로서 宰臣인 김부식의 別第에 우거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는 간관의 탄핵을 받아 기거주에서 강직된다.

그리고, 영일현에서 歲貢되어 경주 계수관을 통해 향공으로 상경 종사하였으므로, 계수관 영역으로 보면 김부식과 지역적 연고가 있는 셈이다. 정שמ명이 급제 때 동지공거 金富侁은 바로 김부식의 형이다. 이 또한 김부식과의 관계가 밀접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경에 있는 法興寺를 묘청난에 희생된 魂魄을 진혼하기 위해 중수하고자 할 때, 김부식이 인종에 주청하였고 마침 서경에 종사하던 近臣 정שמ명이 인종의 교서를 받들어 그 절의 경영을 집행하였다고 한다. 이 역시 김부식과 정שמ명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또한 『삼국사기』 말미에 저술한 인명과 직명이 나열되는 가운데, 편수 김부식에 이어 관구 정שמ명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다. 김부식이 총괄 편수한데에 비해 정שמ명은 행정적 지원을 총괄하는 관구직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שמ명은 김부식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고 인간적으로도 친밀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했던 배경을 그의 입사와 관력을 통해 인종대 정치적 파동 속에서 정치적 행보를 추적하여 그의 정치사상적 경향을 짐작하고자 한다. 정שמ명의 묘지명과 열전, 『고려사절요』의 기사, 『동문선』에 보이는 정שמ명이 작성한 표현 자료를 종합하여 그의 연보를 먼저 작성하고 이에 따라 그의 생애를 이해하고자 한다.

〈정שמ명 연보〉

| | | |
|-----|--------------|---|
| 출생 | 현종 1년(1094) | 부 영일현 부호장 侯鑑, 모 鄭氏(묘). |
| 11세 | 예종 1년(1104) | 鄉貢(묘). |
| 17세 | 예종 6년(1110) | 成均試 합격(묘). |
| 27세 | 예종 15년(1119) | 禮部試, 복시 합격 지공거 한안인, 동지공거 김부일(묘, 세, 지). |
| ? | | 內侍 배속(열). |
| ? | | 郡守 정שמ명(동35) |
| 39세 | 인종 11년(1132) | 秘書少監 東宮侍讀學士 정שמ명(동29) |
| 40세 | 인종 12년(1133) | 左正言知制誥 정שמ명(동35) |
| 41세 | 인종 13년(1134) | 內侍 정שמ명, 소대현 하도 굴착(절). |
| 42세 | 인종 14년(1135) | 內侍, 兵船判官 정שמ명, 서경 서남해도 水軍 戰船 동원 적선 방어 작전(절). |
| 46세 | 인종 19년(1139) | 省郎[諫官] 정שמ명, 김부식, 임원애, 이충, 최주, 최재 등과 함께 시폐10조 복합 상서(절). |
| 49세 | 인종 20년(1141) | 國子司業起居注 정שמ명, 김부식 別第 우거로 간관예를 잃었다 하여 탄핵 기거주 낙직(절). |

인되었다가 한 돌이 못되어 벼슬길에 참여할 수 있었나이다”라 한 데서 알 수 있다.

정습명에 비서소감 동궁시독학사 지제고를 역임한 것은 최유정이 쓴 비담 「鄭襲明讓秘書少監東宮侍讀學士知制誥不允」에서³⁶⁾ 알 수 있다. 태자가 책봉된 것은 인종 11년이므로³⁷⁾ 이때 인종이 정습명에 동직명을 내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인종 20년에, 정습명이 재신 김부식의 별제에 우거한 사실 때문에 諫官禮를 잃었다고 탄핵되던 때에, 서북면병마부사로 임명되었던 사실은 물품을 하사하심을 사례하는 표문에서 알 수 있다.³⁸⁾ “성상 께옵서 신을 서북면병마부사로 임명 차출하시고, … 탄핵이 한창 심하여 면직될까 깊이 걱정하던 중이었사온 데도 宸衷으로 영단을 내리시어 뜻밖의 성은을 지나치게 입사오니 …”라 하여 간관직에서 外職으로 전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大絹綿紬와 白廣紵布를 각 10필, 細絲紬 5필, 白綿 10근, 內莊宅米 50곡을 하사하였던 것이다. 이는 인종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습명의 관력을 살펴보면, 예종 말년에 급제 후 內侍에 배속되었다가 지방 수령직을 거쳤다.³⁹⁾ 인종 11년 학관에 임명되었다가 비서소감 동궁시독학사로서 뒤에 의종이 된 동궁을 교육하면서 인종의 신임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동궁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전심 조력함으로써, 인종과 동궁의 어머니 임후의 동궁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못하게 한 셈이다. 당시 왕위 계승은 정국의 방향을 가르는 중대 사항이다. 인종이 왕위를 계승할 때 한안인파의 예종 동생 帶方公 備를 계승자로 내세우고, 이자겸과 김부식은 예종의 장자 인종을 내세워 대립하여 韓安仁 일파를 제거한 바 있다.⁴⁰⁾ 이로 보아, 태자 책봉에 장남의 지위를 강조한 것으로 장자 왕위 계승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는 정습명에게도 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부식은 가정과 國을 구분하고 私禮와 함께 公禮를 천명함으로써 국왕권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군권 중심의 국가질서를 주장하였다.⁴¹⁾

인종 12년에는 좌정언 지제고를 역임하고, 동왕 13년에는 내시로서 국왕의 명을 받들어 洪州 蘇大縣의 河道 굴착을 지휘하기도 하였다.⁴²⁾ 묘청난 때는, 兵船判官으로 西京의 적선을 방어하는 작전에 참여하여,⁴³⁾ 김부식의 묘청난 진압 지휘에 참여하였다. 인종 19년에는, 간관으로서 인종에 時弊 10조를 김부식과 함께 伏閣 上書하였다.⁴⁴⁾

36) 『東文選』卷29, 批答, 鄭襲明讓秘書少監東宮侍讀學士知制誥不允.

37) 『高麗史』卷16 世家, 仁宗 11年 2月 癸卯.

38) 『東文選』卷35, 表箋, 謝賜物表, “伏蒙聖慈差臣西北面兵馬副使…吏議方攻 深憂削迹 宸衷克斷 過沐橫恩”.

39) 『東文選』에 정습명의 시 오연율시 石竹花(권9), 칠언절구 贈妓(권19), 칠언절구 十日欲招咸尙書同飲聞其仙去有感(권19) 등이 있는데, 앞의 두 시가 내용으로 보아 지방으로 나갈 때에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破閑集』에는 정습명이 기생에 준 시에 관한 논평이 있는데 그 기생이 있는 곳을 南州라 하고 습명이 杖節로 지날 때라 하였다. 장절은 執持旌節의 준말로 황제가 旌節로 신빙하여 병권이나 遣使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찰사로 파견되었을 때가 아닌가 한다.

40) 오영선, 1993, 「인종대 정치세력의 변동과 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9.

41) 都賢喆, 2000, 「12세기 公·私禮와 金富軾」,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42) 『高麗史』卷16, 世家, 仁宗 12年 7月.

43) 『高麗史節要』卷10, 仁宗 13年.

이후, 윤언이의 부상에 따라, 김부식은 치사를 청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⁴⁵⁾ 정습명 역시, 김부식의 별제에 우거한다는 이유로 간관으로서 재신의 집에 있는 것은 간관의 예를 벗어난다하여 탄핵을 받아, 서북면병마부사로 외직에 전직되고 있다. 곧, 국왕 측근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 셈이 된 것이다.

이때도, 김부식은 순화현 법흥사 주지 澄悟의 청을 들어 법흥사 중수를 인종에 건의 하였고, 마침 근신 정습명이 서경 지역에 종사한 이유로 그를 시켜 중수 행정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⁴⁶⁾ 정습명의 서경 지역 종사는 곧 순화현 일대를 관할한 서북면병마 부사직을 수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서경에서의 난 후 후유증을 불사로서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인종, 김부식, 정습명 등이 함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김부식과의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인종 역시 김부식, 정습명 등과도 신임의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김부식은 致仕를 강청하여 사제에서 『삼국사기』 편찬에 몰두하였다. 이때 참여한 參考職은 모두 김부식과 임원애를 門主로 한 김부식 등의 정치사상에 공감한 부류로 생각된다. 그의 정치 사상은 『삼국사기』 곳곳에 있는 史論 30여 편에 잘 반영된 것이다.⁴⁷⁾ 한편으로, 정습명은 관구직으로 『삼국사기』 편찬에 총괄 협조한다. 이때 참여자의 명단은 현존 『삼국사기』 판본 말미에 따르면, 參考에 金永溫, 崔祐甫, 李黃中, 朴東柱, 徐安貞, 許洪材, 李溫文, 崔山甫 등이고, 編修에 金富軾, 同管句에 金忠孝, 管句에 鄭襲明이다.

동관구 김충효는 內侍로서, 관구 정습명은 右承宣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였다. 이는 국왕 측근의 내시, 승선이 그 관구직에 임명된 것이며 史官職과는 무관하다. 앞의 참고직도 사관과 관련된 것은 허흥

44) 『高麗史節要』卷10, 仁宗 18年.

45) 윤언이, 한유충은 김부식 계열과는 다른 부류의 관료들이었다. 윤언이는 김부식으로부터 칭제건원론자로 탄핵되었던 것이다. 윤언이는 김부식의 탄핵이 부당함을 상소로 올렸다. 김부식은 왕안석의 변법적 개혁보다 사마광의 인치주의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논고는 정구복, 앞의 논문, 1985; 오영선, 앞의 논문, 1993 참조. 김부식이 유교적 실천 도덕의 실현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일파라 하면, 윤언이는 그 철학적 추구를 보다 중시하여 역과 도교,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귀족세력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논고는 김용곤, 1989, 「고려시기 유교관인층의 사상동향-문종~충숙왕기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6 참조.

46) 『新增東國輿地勝覽』卷52, 順安縣, 佛宇 法興寺, “金富軾記…山僧澄悟…愆重修 詣闕下願奏請而不能自達 於是臣上書以聞 時近臣鄭襲明從事西京則 教曰 向者此京人爲妖僧妙清所誣誤 負固不服于周官之法 以臣召君犯春秋之義 遂命 元戎攻城致討 不唯兇徒自投羅網 抑我士卒殞命矢石 積日累月 逝川寢遠 猶恐浮魂落魄 受苦長夜 擬憑佛事以資津濟 可與澄悟相地 宜作新之 以稱我哀矜之意 襲明承制 官給其費 命下官執事 移古寺北十步許地 經營之…”.

47) 『三國史記』 史論에 보이는 김부식의 군권과 신권을 중시한 그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金駿錫, 1984, 「金富軾의 儒敎思想-『三國史記』論贊의 검토」, 『漢南大學校論文集』14(2005, 『韓國 中世 儒敎政治思想史論 I』, 知識産業社 재수록); 정구복, 1985, 앞의 논문; 李康來, 1997, 「『삼국사기』사론과 김부식」, 『三國史記典據論』, 民族社 참조. 한편,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동기는 국왕을 절대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왕권은 철저히 견제되어야 하며, 인종대 전개된 서경천도, 금국정벌, 칭제건원론은 왕권강화와 관련되므로, 이를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견해도 있다(김당택, 2010, 「인종조의 서경천도·칭제건원·금국정벌론과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고려 양반국가의 성립과 전개』, 전남대출판부).

재 혼자만 直史官의 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⁴⁸⁾ 편수 김부식이, 치사한 상태여서, 監修國史職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실직이 아니다. 이처럼 실제 『삼국사기』 편찬은, 김부식을 중심으로 그와 지공거 등의 연구가 있거나 향공 출신 정습명처럼 지금까지 그와 정치 행보를 같이 해온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 편찬 결과를 인종에 올린 것이다. 인종은, 사관을 통한 역사 편찬이 아닌, 김부식에 측근 내시, 승선을 통해 행정지원하고 8명의 유림랑, 문림랑 등 9품 이하 하급 품관을 보내 『삼국사기』 편찬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김부식은 이후에는 정치적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의종 즉위후 인종실록 수찬을 주재하였다. 하지만, 정습명은, 인종의 명으로 태자에 書經 大禹謨를 강하였고, 인종이 遺命으로 정습명의 말을 써서 나라를 다스릴 것을 顧托하여, 의종의 측근인사로서 부각되었다. 의종 3년에도, 左承宣으로서 평장사 고조기, 어사대부 문공원, 중서사인 왕식과 함께 국사를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⁹⁾ 또한, 이공승이 기식이 넓고 깊어서 宰輔의 望에 있다고 계를 올려 추천하였다.⁵⁰⁾ 하지만, 의종 5년 2월 김부식이 졸하고, 그도 그해 3월에 김존중에 그 직 곧 좌승선의 직임이 대행되자 자살을 하고 만다. 죽음마저도 김부식과 같이 하였다.

이상이 정습명의 권력과 정치 행보의 개략이다. 김부식이 지향하는 정치 이념은 公禮를 강조하고 국왕권이 측근이나 문벌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습명은, 그의 이 같은 정치 이념에 동조하였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김부식과 밀착된 관계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정습명의 정치적 이념은 단지 김부식과의 관계만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의 작성 표문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문은 지극히 공식적인 글이지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기회에 올린 글은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보여 준다. 다음은 인종이 정습명에 좌정언지계고를 임명한데 대한 사례표이다.

신이 田野의 출신으로 聖明한 때를 만나 ... 신이 워낙 세속과는 맞지 않아 우울하고, 짝짓기를 좋아하지 않아 나이 40에도 이름이 들리지 않았사오나, 詩書만은 대충 열람하고 익혀 고금의 治亂을 어느 정도는 아옵나이다. 殷·周가 흥한 것은 善에 있었으나 그들이 망한 때에는 자기 허물 듣기를 싫어하였고, 秦·漢이 성한 것은 어진 이를 얻음에 있었사오나 그것들이 쇠할 때에는 讒言하는 자들을 높이 등용했으니, 과거로써 미래를 안다 하옵거니와 史冊을 읽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흘렀나이다. ... 신과 같은 頑鈍으로써 位階를 뛰어넘어 榮遇가 비상하오니, 무엇으로 이에 보답하오리까. 오직 충심으로 啓沃하여 임금을 위하여는 죽음도 피하지 않겠나이다.⁵¹⁾

48) 田中俊明, 1977, 「『三國史記』撰進と『舊三國史』」, 『朝鮮學報』83.

49) 『高麗史』, 卷17, 世家, 毅宗 3年 8月 癸酉.

50) 「李公升 墓誌銘」(김용선 편저, 2001, 『제3판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p.244).

자신이 전야 출신 곧 향공으로 급제하였고, 세속과 맞지 않고 세력 기반도 없이 나이 40이 되어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향공 출신이 가진 한계를 토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고금의 흥망을 예로 들어 국왕 허물을 직간하고 참언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자신은 충심을 다할 것이며 국왕의 그러한 신임에 죽음도 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문벌 기반을 가진 자와 달리, 향공 출신으로서 오직 국왕의 신임과 국왕의 올바른 판단에 따른 국정 운영만이 그가 지향하는 정치 이념이라 생각한 것이다.

금과의 관계, 서경천도, 태자책봉 등의 현안에서, 인종은, 문벌 이자겸, 유학 정치 이념의 김부식, 숙종대 이후 신법을 통한 개혁세력 윤언이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을 거중 조정하는 면을 보였다. 그런 과정에서, 김부식과 향공 출신 정습명은 정치적 파동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종 5년을 기점으로, 의종은 격구를 통한 무신과 접촉하고, 정함, 김존중 등의 내시 등을 측근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일원화하면서 정습명은 소외되었다.⁵²⁾ 의종의 측근 중심 정치 지향은 무신난을 배태한 원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정습명 묘지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확인하였다. 먼저, 졸년시의 나이가 명시되어 그의 출생 연도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그의 부가 鄭侯鑑이고 어머니가 鄭氏이며, 그의 처도 鄭氏임을 알 수 있어, 당시 향촌 호장층이 동성혼을 통해 그 족적 유대를 유지해간 관행을 알 수 있고, 이로써 향공 출신의 기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연령별 향공시, 성균시, 최종 급제시의 나이를 알 수 있어 정습명이 예종시 학제 과거제 개혁을 거치면서 京師에서 교육과 최종 고시과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공 출신 묘지명의 구체적 실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습명의 정치 행로, 장례과정, 졸년이 『고려사』와 1년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토대로, 『고려사』, 『동문선』에 남은 정습명의 表箋 등을 통해, 그의 정치적 행보를 더듬어 향공 출신의 정치 지향점 등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이 복원할 수 있다. 정습명은 현종 1년(1094)에 영일현 부호장 정후감을 아버지로 정씨를 어머니로 출생하여, 예종대 학제와 과거제 개혁을 통한 인재 등용 분위기에 향공으로서 최종 고시에 합격 출사한다. 그는 문벌과는 혼인 관계도 없어 보이는 것은 부, 모, 처 모두 동성혼에서 알 수 있으며, 그로써 오히려 향공

51) 『東文選』卷35, 表箋, 謝左正言知制誥表, “臣起迹畎畝 遭時休明 … 重念臣與世謬悠而不偶 行年四十而無聞 粗能閱習詩書 頗識古今理亂 商周之興也在乎善 其亡也惡聞已過 秦漢之盛也在得賢 其衰也尊用讒夫 切嘗以往知來 不覺痛心流涕 … 如臣頑鈍 乃越品流 榮遇非常 論報何所 唯有心可啓以沃 但爲主死且無辭”.

52) 의종 초년의 정치구도에 대해서는 채용석, 1993, 「의종대 정국의 추이와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9 참조.

출신의 족적 기반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그의 관력과 정치 행보는 인종 11년 후에 의종으로 즉위한 태자를 시독하면서 드러난다. 12년에는 좌정언 지제고로 간관직에 등용된다. 인종 14년 묘청난을 진압하는데 김부식과 행보를 같이 한다. 인종 19년에는 시폐 10조 복합 상서에는 보다 밀착되었다. 인종 20년에는 국자사업 기거주로서 김부식의 별제에 우거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해졌고, 이로 인해 기거주 직을 잃고 서북면병마부사로 외직으로 나간다. 치사를 강청한 김부식도 이즈음 물러나게 되었으나, 順和縣 法興寺 불사를 함께하여 그 유대가 이어졌으며, 인종 23년 김부식이 치사후 『삼국사기』 편찬에 右承宣의 직을 지닌 채 관구로서 협조하였다. 의종 즉위 후에는 인종의 고탁 신하로서 적극 국정에 참여하였으나, 의종 5년에 의종의 측근인을 통한 정치구도에서 배제되어 죽음을 선택하였다.

이상에서, 정습명은 김부식과 지연적, 향공출신으로서 공감대, 김부식의 형 김부일의 문생으로서의 관계 등에서 김부식과 정치 행보를 같이하였고, 김부식의 公禮를 바탕으로 국왕권 중심의 국가 질서를 강조한 정치 이념을 지향하였다. 이는 그의 『동문선』에 남은 표전문에서도 향공 출신의 존립은, 국왕권이 문벌과 족당이 아닌 公禮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러할 경우 충심을 다하겠다는 그의 정치 지향점을 보여 주었다. 정습명은 고려 중기 예종대, 인종대에, 국왕권 강화와 향공 출신을 기용하여 국왕권을 公禮에 바탕으로 운영의 분위기에서 나타나 적극 그 이념을 폈으나, 의종의 측근 지향적 정치 구도로 선회하면서 좌절한 삶을 보여 주었다. 정습명의 운명은 곧 고려 중기 정치운명과도 겹쳐져 보인다.

투고일 : 2012. 8. 30

심사개시일 : 2012. 9. 3

심사완료일 : 2012. 9. 18

『三國史記』

『世宗實錄地理志』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史綱目』

최영호, 2005, 「고려시대 묘지명과 『고려사』 열전의 서술형태」, 『한국중세사연구』19.

김용선, 2008, 「새 자료 고려 묘지명 다섯 점 반」, 『역사학보』198.

김용선, 2010, 「새 고려 묘지명 7점」, 『사학연구』100.

김용선, 2004, 「고려 묘지명 일람」, 『고려 금석문 연구—둘에 새겨진 사회사』, 일조각.

김용선 편저, 2001, 『제3판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國史編纂委員會, 2006, 『高麗·朝鮮墓誌 新資料』韓國史料叢書第五十.

허흥식, 1981, 「국보호적으로 본 고려의 사회구조」, 『고려사회사연구』, 아세아문화사.

허흥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허흥식, 2006, 「金光中配 李氏의 묘지와 석관」, 『생활문화연구』19.

박종기, 2000, 「고려시대 묘지명 역주작업의 현황과 과제」, 『고려시대연구』 I.

서성호, 2006, 「정언심 묘지명 소개」, 『다시 보는 역사편지 고려묘지명』, 국립중앙박물관.

노명호, 1988, 「고려시대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과 가족」, 『한국사론』19.

閔賢九, 1974, 「朴康壽 墓誌銘의 檢討」, 『歷史學研究』5.

정용숙, 1992, 『고려시대의 후비』, 민음사.

권순형, 2006,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 혜안.

이수건, 1984, 「토성의 출신 기반」,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정구복, 1985, 『고려시대 사학사 연구—사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용운, 2009,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신천식, 1995, 『고려교육사연구』, 경인문화사.

한기문, 2011, 「고려시대 성주 호장층의 존재양태와 활동공간—성주 시비실 유적을 중심으로—」, 『북한 사립』29, 경북사학회.

박진훈, 2005,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官人 가족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35.

박용운, 1990,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 일지사.

- 변태섭, 1987,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 오영선, 1993, 「인종대 정치세력의 변동과 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9.
- 都賢喆, 2000, 「12세기 公·私禮와 金富軾」,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 김용근, 1989, 「고려시기 유교관인층의 사상동향—문종~충숙왕기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6.
- 金駿錫, 1984, 「金富軾의 儒敎思想—『三國史記』論贊의 검토」, 『漢南大學校論文集』14.
- 李康來, 1997, 「『三國史記』史論과 金富軾」, 『三國史記典據論』, 民族社.
- 김당택, 2010, 「인종조의 서경천도·칭제건원·금국정벌론과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고려 양반국가
의 성립과 전개』, 전남대출판부.
- 田中俊明, 1977, 「『三國史記』撰進と『舊三國史』」, 『朝鮮學報』83.
- 채웅석, 1993, 「의종대 정국의 추이와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9.

<Abstract>

A Note on Jeong Seupmyeong Epitaph in Goryeo

Han, ki-moon

I study Jeong Seupmyeong`s career and political intention on his epitaph and reference data.

On the epitaph there are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we could find his period from birth to death. Second, his wife`s surname is Jeong. So the provincial elites(戶長層) in the time could have the base of clans` bondage on the homogenial family-name marriage. Third, I could know his passing years from the town- examination to Seonggyun-examination and final examination. Last, I saw Jeong Seupmyeong`s political life and funeral ceremony. On his death year is one year gap between 『Goryeosa』 and the tombstone.

He was born between the father, vice-country-leader(副戶長), and same last-name mother in Yeongilhyeon(迎日縣) in Heongjong(憲宗) 1(1094). The more important in his bureaucratic career and political step is to play the footstep with Kim Busik from the suppression of Myocheong(妙淸) Rebellion in Injong(仁宗) 14 to the edition of 『Samguksagi(三國史記)』 in Injong 23. He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state-administration in Uijong(毅宗). But Uijong excluded him in the King`s staff politics. So Jeong suicided.

Jeong Seupmyeong had the regional relation to Kim Busik. He was the student of Busik`s elder brother Kim Buil. So he worked politically with Kim Busik. Furthermore, he had together Kim Busik`s political ideology which emphasized the state-order on the center of the king in the structure of the public ritual. this is clear in his 「The letter appealing to the king(表箋文)」 in 『Dongmunseon(東文選)』.

▶ Key Words : Jeong Seupmyeong Epitaph(鄭襲明 墓誌銘), homogenial family-name marriage(同姓婚), from the town-examination(鄉貢出身), Kim Busik(金富軾), political intention(政治志向)